

존경하는 대광의 선 후배 동문 여러분!

입추가 지났는데도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간 유지해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교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서울시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이 난 것입니다.

모교가 처한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고 전환 소식으로 크게 상심하고 계실 동문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자신도 자사고를 지켜내지 못했음에 동문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광은 단지 자율형 사립고여서 명문고가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기독교 정신이 깃든 인성 교육과 참 사람을 만드는 전인 교육으로 인해 크게 빛을 발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경천애인의 정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후배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학교 체제가 변하더라도 기독교 대광의 정신과 실력대광의 전통은 꼭 지켜 나가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히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문들도 모교 교원들과 재학생 후배들이 흔들리지 않고 빨리 반석위에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힘차게 일어설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이번 일반고 전환의 결정으로 모두가 느꼈을 당혹감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모교와 힘을 합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막바지에 다다른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총 동창회도 모교와 동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 기태 드림